

大學評價를 위한 現地訪問記

陳 渭 教
(慶北大 教育學科)

여기에 필자가 처음으로 대학의 現地訪問評價班에 끼어 열흘 동안 순회 방문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며 생각한 것을 피력하게 되었다.

짧은 기간에 여러 대학을 바쁘게 스치고 지나왔다고 해도 좋을 만큼, 알맹이가 되는 內實과 문제의 核心, 그리고 오늘 이 나라 大學의 發展을 가로막고 있는 대표적인 장애 요인, 또는 우선순위 1위로서 이것만 갖추어진다면 대학교육의 秀越性을 획기적으로 드높일 수 있겠다고 판단되는 측면을 뽑아내는 일에서 필자의 경우 지극히 미흡하였다는 것을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 走馬看山이라 했던가?

이 글에서 또 하나 전제해야 할 것은 여기에 어떤 비판, 제안, 권장 또는 어떤 의견이 제시된다면 이는 평가班的 견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공통적인 視角도 있기는 하겠으나, 이 글은 어디까지나 필자 개인의 좁은 시각에 비쳐진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大學發展과 評價

더 말할 나위 없이 대학은 發展해야 한다. 대학이 맡고 있는 막중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대학은 끊임없이 발전해야 한다. 대학에 대해 절

고 있는 기미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발전을 거듭해야 한다. 발전이란 우리가 그리고 있는 이상적인 大學像에 일보 일보 접근해 가는 것을 가리킨다. 이상적인 대학의 모습이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그려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대학과 괄목할 연구 성과를 이룩해 내는 대학, 다시 말해서 ‘강력한 敎育力’과 ‘높은 學問的 秀越性’을 아울러 갖추고 있는 고등교육 기관이 바로 소망스러운 대학상의 중요한 측면이라 할 것이다.

그러하여 이상적인 大學像에로의 접근을 촉진하는 필수적인 조건으로서 우리는 부단한 평가의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믿는다. 평가 작업은 發展方略의 필수 요건이고 대학의 質管理 作業이라 하겠다. 대학 발전의 질 관리 작업으로서의 대학평가는 準據와 尺度와 實行이 모두 객관적이고 신뢰로우며 타당해야 할 것을 필수 요건으로 한다. 이 같은 객관성, 신뢰도 및 타당도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몇 해 동안 고도의 지혜를 동원하여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금년의 효율적인 대학평가 작업을 위해, 지난 5월에 다가오는 2000년대의 “高度技術情報社會의 大學機能과 評價方向”을 주제로 하여 세미나를 가진 바 있고 필자도 여기에 참여하여 한 주

제를 발표하였다. 세미나에서는 그와 같은 사회에 있어서 대학의 본질적인 기능인 교육, 연구, 사회봉사가 어떤 양상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이를 실천해야 하는 대학평가의 철학, 방향, 역할이 어떠한가에 대한 탐색이 5개 주제에서 논의되었고, 이를 종합하여 黃禎奎 교수는 “일곱개의 葛藤과 挑戰”이라 불렀다(大學教育, 1985년 7월). 즉 고도기술정보사회에서의 대학의 역할을 보는 인식에 갈등이 존재하며, 이것은 또한 한국의 대학교육이 나아가야 할 座標와 개념을 설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도전의 문제로 파악했다는 것이다.

이 일곱 가지 속에 대학 기능(교육·연구·사회봉사)의 조화 문제, 대학의 發展史(엘리트교육 지향을 거쳐 대중화·보편화시대로의 전환), 대학교육의 이념과 목표설정 문제, 교육의 非人間化·疎外, 대학평가의 표준 또는 기준 문제, 그리고 평가의 객관성과 표현 방식의 量과 質 등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금년도의 評價對象과 內容

이번의 현지방문평가에 들어가면서 2, 3회의 회의를 가지고 협의회에서 개발한 大學評價 準據模型을 중심으로 여타 가지 사전 안내를 받았다. 평가준거모형은 여섯 개의 대분류(교수·학습활동의 효율화, 연구활동의 활성화, 장학·복지활동의 활성화, 사회봉사활동의 활성화, 행·재정의 합리화, 그리고 교육여건의 현대화)에 20개 항목의 중분류, 그리고 총 112항목의 소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모든 대학으로부터 두어달 전에 작성 제출되어 있는 방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自體分析研究報告書’를 배부받았으며 아울러 평가작업 지침, 평가반원 각자가 작성·제출할 日日報告書用紙도 지참하여 현지로 항발하였다. 보람찬 일을 하게 되었다는 실례임과 한편 막중한 사명감에서 오는 두려움을 가지고 현지방문의 길에 올랐던 것이다.

금년의 현지방문 대상은 전국의 4년제 단설 單科大學 42개교이고, 5개 지역 평가반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반은 반장을 포함 6명의 교수단과 1명의 협의회측 연구원 등 7명씩으로 구성되어

오니 총 35명이 각 지역으로 파견되었다. 평가 분야는 教育與件을 비롯하여, 教授·學習과 研究, 獎學·福祉와 社會奉仕 그리고 行·財政, 大學院, 人文系, 社會系 등 여섯 개 분야가 평가의 대상 분야로 정하여졌다(이 중에는 단설 단과대학이니 만큼, 대학원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인문계·사회계 중 한 분야의 학과가 없는 대학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짐작할 만한 일이다). 5개 지역은 충청, 경상, 강원·경기, 전라 그리고 경기·서울로 나누어졌으며 7월 8일부터 18일까지의 기간에 대체로 하루에 한 대학을 방문·평가·면담하도록 일정이 잡혀 있었다. 그리고 필자에게는 주된 평가 과제로서 ‘教授·學習과 研究’의 분야가 배당되었는데, 세분하면 教授資源의 質, 教授方法, 教育課程 運營, 學生의 質, 教授의 研究活動, 學生論文指導, 그리고 附設研究所 運營 등이다. 상당한 정도로 강행군이라 느껴지기도 하였으나 신참자로서 도전적인 흥미도 아울러 맛보았다는 것이 솔직한 솔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지방문이 끝난 이 시점에서 필자의 무던 視角으로 하여 성과에 있어서 매우 미흡하였음을 自省하지 않을 수 없다.

現地訪問의 의미

그러면 대학 현지를 방문한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각 대학이 제출한 ‘大學自體分析研究報告書’(상세하고 방대한)의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데도 구태여 현지를 방문한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이러한 물음은 이번이 초행인 필자의 경우에 더욱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가장 분명한 점은 우선 심판자의 역할을 한다거나 대학들의 상대적인 優劣을 가리자는 데 그 뜻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구나 대학을 ‘감사’한다거나 미흡한 측면을 ‘나무라’는 따위의 의도는 적어도 필자가 보기에는 추호도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우정 어린 제안’ 정도의 조언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우리는 모두가 大學人이다. 방문단이나 이 방문단을 맞이하는 측이나 모두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같은 대학인들이

모이고 만나서 대학의 문제를 진단하면서 보람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공동의 관심사를 논의하며 협동적인 解決과 發展方略을 개발하자는 데 그 첫째의 목적이 있었다.

다음으로는 大學自體分析研究報告書에 미처 수록하지 못하였거나, 있을지도 모르는 잘못 기재된 내용을 함께 제검토함으로써 수정·보완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또 각 대학 특유의 문제나 고민이 있는 경우, 보다 심층적으로 진단·분석하는 자리도 가질 수도 있었다. 그리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측이 전 대학들의 분석보고서를 토대로 마련한 컴퓨터 처리 자료에 터하여 각 대학에 비해 피이드백을 제공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세째로 필자의 경우는 초행이지만, 현지방문의 체험을 가지고 있고, 고등교육 기관으로서의 대학의 교육과 연구, 행·재정 여건과 풍토 등의 지원 체제의 분야에서 높은 식견과 탁월한 경륜을 가진 선배교수들에 의한 방문대학의 여러 慣行의 개선과 발전 방향 등에 대한 고차적인 示唆라든가 또 타대학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무적이고 모델이 되는 측면을 전달받음으로써 당해 대학의 발전과 혁신 계획의 設計·發展에 커다란 자극제가 되는 데도 그 뜻이 있다 할 것이다.

끝으로, 특히 숲(소속대학)속에 파묻혀 지내온 필자의 경우, 이 숲을 일단 벗어나 다른 대학들을 전문함으로써 몸 담고 있는 대학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된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것도 이번 현지방문의 의미로 꼽을 수 있겠다.

綜合大 選好의 경향

이번에 현지방문 평가의 대상이 된 단설의 單科大學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종합대학교로 발돋움하기를 회구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되었다. 우리가 방문한 대학들 중에는 사실 장기 종합 발전계획 또는 마스터 플랜에서도 綜合大學校案을 볼 수 있었다. 물론 발전의 방향에는 內質化도 있고, 연구, 교육, 기타 고등교육 기관으로서의 本來的 使命의 완수와 함께 수월성의 추구하고 실현을 못지 않게 부각시키고 있는 한

편, 여러 개의 단과대학들과 대학원, 여러 연구소 기타 부속기관들을 포용하는 그야말로 웅장한 장래 계획을 입안하고 있고 그러한 大學發展의 비전을 펼쳐 보이고 있었다.

하기야 학교의 상대적 소규모가 대학평가 절차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의식하고 있는 듯하였다. 이와 더불어 다소의 피해 의식(이런 인상은 지방대학일수록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느낀 것은 비단 필자만의 관찰에 한정되는 것일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우선 외형적인 규모만이라도 종합대학교가 됨으로써 유수의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자 하는 소망은 동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대학의 '綜合化'가 그리 쉽거나 가까운 시일 안에 이루어지기란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고 보면, 도리어 보다 가능한 대학 발전 계획의 실현을 위해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투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종합화가 반드시 바람직하고 소망스러운 것인가? 대학 졸업생의 취업 문제가 지극히 절박한 상황에서 졸업생의 生産과 積滯를 더욱 부채질함으로써 자칫 자승자박의 난국을 대학 스스로가 자초하는 결과를 빚게 되지는 않을까?

어느 대학에서 각 분야별 평가가 끝난 뒤, 대학 보직자들과 방문만원 전원이 자리를 함께 하여 종합적인 논의의 회의를 가졌을 때, 그 지역의 특수한 자원과 장점을 선용함으로써 알찬 特性化大學으로 발전 방향을 잡으면 어떠하겠는가 하는 방문단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대하여, 당해 대학의 교수 한 분은 "그렇지 않아도 일부 계열의 학과들이 다소 소외를 당하고 있는 실정인데 특정 몇몇 분야를 특성화하여 重點育成하자는 견해를 대할 때마다 거의 '알레르기'적인 반응이 일어난다"고 토로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실로, 대학들은 특정 지역의 대학으로 남아 있기보다는 '韓國의 大學'으로 나아가 '世界의 大學'으로 雄飛해야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역력히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공통의 금지와 동시에 문제를 안고

우리는 모두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직한 응용 방법을 교수·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는 일”(대학교육의 목적)에 동참하고 있으니 자랑스럽고 보람찬 일이 이 위에 또 있으랴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라의 동량이 될 人材를 기르며, 전통적으로는 학문의 전당, 진리의 상아탑에서 스승과 학자의 호칭을 들어 왔다. 연구실을 운영하고 차분히 공부에 정진하며, 초롱초롱한 맑은 눈망울을 대하여 세심하게 준비한 강의와 수업을 실행함으로써 더 없는 보람을 만끽하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학생의 학업성취 평가에서 그 진보의 모습을 흐릿한 눈으로 지켜본다든지 비록 완벽한 것은 못되더라도 학생들이 개발한 論文을 지도하고 심사함으로써 병아리 학도들의 學問的 修鍊過程을 이끌어 간다든지, 세미나 등의 研究集會를 통하여 행여 굳어질 수 있는 동료교수들과 전공분야 간의 ‘담’을 제거하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 학생들과 더불어 실습여행이나 현장답사 등의 행사를 가질 때, 강의실이나 연구실에서와는 다른 또 하나의 人間的인 教育狀況을 경험한다든지 하는 등등, 이러한 일들이 대학인의 금지며 樂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금지를 현실적으로는 완벽하게 느낄 수가 없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수·학습과 연구 분야를 보고, 담당자들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 분야에서 우선 문제라고 할까 공통적으로 아픔을 느끼고 있는 점을 몇 가지 간추려 보기로 한다.

첫째, 교수·학습을 설계·개발·실행하는 教授資源과 그 質의 문제이다. 우선 모두가 짐작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학생수에 비하여 교수와 조교의 수효가 훨씬 적다는 것이다. 금년 현재 대학(교)의 교수 1인당 학생수가 전국 평균 35.7명인데, 이보다 학생수가 많은 경우가 있고, 교수들의 직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현재의 다른 큰 대학의 경우들과는 달리 교수·부교수에 비하여 전임강사와 조교수가 크게 상회

하고 있다. 이는 이번에 학교의 역사가 짧은 신생·신설대학이 많았기 때문이다.), 박사학위 소지율의 저조 등이 나타나고 있었다. 당해 대학 당사자들도 교수자원의 개발이 시급한 발전 과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었다.

둘째, 教授方法과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이다. 이 측면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할 수는 없었고, 강의계획서를 비롯하여 평가 및 과제 부과 방식과 회수, 강좌 규모(class size), 각종 視聽覺 教具·教材의 확보와 활용 상황을 살펴보았을 뿐이다. 교수방법에 관한 한 ‘講義授業’이 主宗을 이루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하여 수업방법의 ‘多樣化’라는 조건은 극히 미흡한 상황인데 이는 비단 이번의 평가 대학의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모든 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나아가 선진의 여러 나라 대학의 경우에도 교수방법은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教授工學(instructional technology)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셋째, 學生의 質에 관한 평가 항목이다.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 대체로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느껴졌다. 일반적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學習 準備性을 비롯한 出發點行動 및 技能(이의 지표의 하나로서 미학입학 학력고사 성적과 고교 내신성적으로 보아)이 미흡하다는 점에 비추어 더욱 ‘잘 가르치는 방안’의 모색에 힘을 기울여야 하겠다는 생각이 간절하였다. 그래서 대학의 기능으로서 연구도 중요하지만 教授方法의 혁신에 역점을 두어 學生學習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주는 활동에 대해서도 상당한 誘引體制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넷째, 教授의 研究活動 문제이다. 교수의 본질적인 기능이 연구에 있다는 것은 異論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여건에 있다고 생각한다. 연구비의 부족은 언제나 지적되는 일이고, 특히 미상 대학들의 경우 외부로부터의 연구비 수혜가 적을 뿐만 아니라 학내의 연구비 지원이란 미미한 것이고, 부설연구소의 활동도 대체로 저조한 편이니 학교의 제정 형편상 이 또한 어려운 문제라 할 것이다. 그리하여 產學協

同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연구비 유치를 위한 대책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모든 교수는 1년에 한 편 이상의 硏究論文을 개발해 오고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 학생수의 과다에다 授業負擔이 비교적 과중한 상황이니 그만큼 연구에 몰두할 시간이 적다는 것도 토로되었다. 학교에 따라서는 교수연구실도 1인 1室이 못 되는 어려운 형편도 보였다. 앞의 교수자원의 질 향상과도 관련이 되는 것이지만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여 학위논문을 개발하고 있는 교수들에 대하여 연구비 보조는 못하더라도 수업부담은 다소 덜어 주는 배려를 대학측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었다. 그리고 지방대학의 경우, 交流勤務教授가 대학당 1~2명이 있으며 이 분들에게는 연구비가 문교부에서 지급되고 있고, 海外研修 중에 있는 교수들이 있는 것도 고무적인 현상이니 만큼 앞으로 형편이 허용하는 한 기회를 확대할 것이 크게 요망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사립대학의 경우, 재단으로부터의 지원이 크게 아쉽다는 것도 지적되었다.

이상, 허용된 지면에서 필자가 지난 여름에 열흘간에 걸쳐 현지방문 평가단의 일원으로 처음으로 참가하여 받은 인상과, 보고 듣고 느낀 것을 토대로 하여 형성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觀察이란 항용 그런 것이지만, 꼭 보고 분석해야

할 核心을 놓친 채, 지입말단의 사소한 사항에 집착하는 일이 비일비제한데, 필자의 무딘 觀察眼으로 하여 이는 더욱 심하였을 것으로 짐작한다. 실로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의 뻔한 범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 필자의 솔직한 고백이다. 이로 인하여 행여 당해 대학들에 누를 끼치는 결과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임을 인정하려고 한다.

손님을 맞이하는 일이란 힘든 일이다. 더구나 7월 중순의 북더위 속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쪽이나 손님쪽이 다 같이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망을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허심탄회하게 공개해 준 대학 당사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모두 각 대학의 발전과 나아가 한국의 大學教育의 관목할 만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공동 노력의 일환임을 함께 인식하고 있는 증좌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지방문단의 대학간 이동을 위한 교통 편의 주선을 비롯하여 우리로 하여금 대과 없이 임무를 다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배풀어 주신 대학 당사자들의 배려에 거듭 감사하면서 이 글을 끝맺고자 한다. 각 대학의 현창 發展을 祈願하면서.

*